



레보클로페라스틴(levocloperastine)

요약

레보클로페라스틴은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뇌에서 기침 중추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기관지에서 기침 수용체의 작용을 방해하여 기침을 억제한다.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적어서 졸음이나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외국어 표기	levocloperastine(영어)
CAS 등록번호	132301-89-4
ATC 코드	R05DB21
분자식	C ₂₀ H ₂₄ ClNO
분자량	329.868 g/mol

유의어·관련어: 기침약, 진해제, 鎮咳劑, antitussive, 기침 억제제, cough suppressant, 비마약성 진해제, 非麻藥性 鎮咳劑, non-narcotic antitussive, non-opioid antitussive, 프리비투스, Privitu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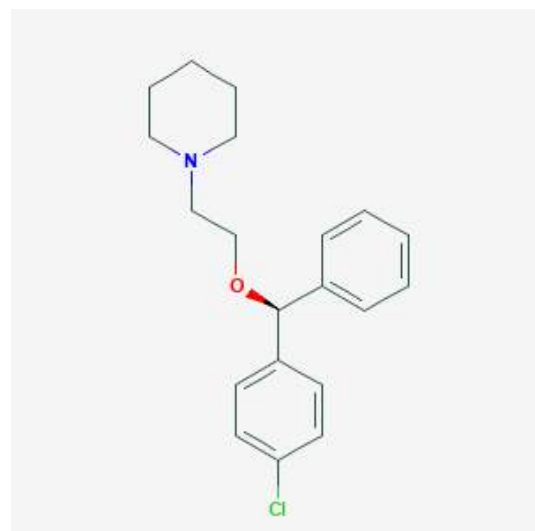


그림 1. 레보클로페라스틴의 구조식

약리작용

기침은 외부물질이 폐나 기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신체의 정상적인 방어기전이다. 코, 기관지, 폐 등 말초 조직에 존재하는 기침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뇌의 기침 중추로 자극이 전달된다.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기관지 평활근과 호흡근육이 급격하게 수축함으로써 기침이 유발된다.

레보클로페라스틴은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진해제라고도 하며 비마약성 진해제에 해당된다.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기침 중추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중추신경 억제작용은 적어서 졸음이나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말초인 기관지에서는 기침 수용체의 작용을 방해하여 기침을 억제한다. 또한 외부자극에 대하여 기관지 수축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일부 억제시킴으로써 기침을 억제하기도 한다.

* 의존성(dependence): 정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또는 중단했을 때의 불쾌함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 주기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한다. 약물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으로 약물을 몹시 갈망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습관성)과 신체적으로 구토, 불면, 발작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신체적 의존성(탐닉)이 있다.

† 히스타민(histamine): 인체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낸다. 히스타민 수용체는 H1과 H2가 있으며, 그 중 외부 자극에 의해 분비된 히스타민이 H1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면 알레르기 반응(기관지 수축, 혈관 확장, 발적, 가려움증 등 유발)을 일으킨다. 또한 히스타민이 위점막의 H2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면 위산의 분비를 자극한다.

효능·효과

기침의 완화에 사용된다. 제품으로는 프리비투스® 등이 있다.

용법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은 현탁액이 있으며, 연령에 따른 용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연령에 따른 레보클로페라스틴의 용법

연령	용법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1회 5 mL, 1일 3회 복용
7~15세	1회 5 mL, 1일 2회 복용
4~7세	1회 3 mL, 1일 2회 복용
2~4세	1회 2 mL, 1일 2회 복용

주의사항

현탁제이므로 복용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준다.

부작용

레보클로페라스틴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드문 부작용(사용자의 1% 미만에서 보고)

졸음, 구역, 구갈, 식욕부진 등

상호작용

레보클로페라스틴과 함께 투여 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약물
레보클로페라스틴에 의해 부작용이 증가되는 약물	일부 항히스타민제(클로르페니라민 등), 항우울제(플루옥세틴 등), 중추신경 억제제(디아제팜 등), 중추신경 흥분제(카페인) 등
레보클로페라스틴에 의해 효과가 감소되는 약물	일부 진경제(파파베린) 등

소아, 청소년 사용

0~2세의 영아에게 투여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영아에게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자 사용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감량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임부·수유부 사용

-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는 복용하지 않는다. 임신 첫 달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신 후기에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필요 시 복용한다.

- 수유부에게 투여한 자료가 없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